

# 여름휴가, '지혜의 바다'로 간다

조선의 르네상스를 구현했던 정조는 일찍이 독서의 중요성을 간파했다. 애민, 실용, 문화 군주였던 그는 어린 시절부터 책을 좋아했던 독서광이었다.

그는 '일독록'이라는 언행집에서 이렇게 말한다. "다위를 물리치는 데는 독서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 독서하면 몸이 치우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고, 마음에 주재(主宰)가 생겨 외기(外氣)가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

한권의 책은 힘과 같은 여유와 즐거움을 준다. 휴가철을 맞아 북캉스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북캉스란 말 그대로 북(book)과 바캉스(vacance)를 합성한 말로, 휴가철 책과 함께 오붓한 휴가를 즐기는 것을 말한다.

현대인들은 지친 생존 경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과도한 업무와 실적 강요는 쉴 새 없이 정신을 혹사하도록 만든다. 정신에도 충전이 필요한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얘기다. 손에 한두 권의 책을 들고 떠나는 여행은 읽과 충전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선물한다.

나희덕(조선대 문장과 교수) 시인은 북캉스를 일컬어 '두 겹의 여행'이라고 말한다. 시인에게 북캉스는 자연으로의 여행과 책속으로의 여행이 만나는 지점이다.

"여행을 떠날 때 시집, 소설집, 에세이집을 갖고 간다. 어딜 가나 책을 들고 가지만 휴가 때 갖고 가는 책은 남다르다. 지난 2010년 여름 코스타리카에서 각국 시인들이 모여 문학대회를 열었던 적이 있다. 장소는 활화산 부근인데 화산이 꿈틀대는 곳이었다. 시를 듣는 청자가 활화산 인근 계곡, 나무, 산새들이었다. 자연을 향해 소리를 내 시를 읽다보니 텍스트 속으로 물소리, 바람소리가 시나브로 흘러드는 이색적인 경험을 했다."

나 시인은 여행을 떠날 때 최대한 짐을 단출하게 꾸린다고 한다. 그러면서 작고 가벼우면서도 밀도 있는 문장과 성찰이 담긴 예술 산문집을 꼭 챙긴다.

'서른 잔치는 끝났다'의 최영미 시인도 휴가철 독서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소설가로도 활동 중인 그녀는 시집을 읽는 중에 곧잘 모티프를 얻기도 한다. '계을 피우듯'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더라

는 것이다.

"시집을 많이 읽는 편이다. 소설과 달리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그 나름의 맛이 느낄 수 있다. 소설은 서사 맥락을 따라가야 하지만 시집은 그렇지 않다. 휴가 때 읽는 시집이 평소와는 다른 감수성, 텍스트에 대한 다면적 이해를 선물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일반인들도 저마다 사정에 맞춰 북캉스를 즐긴다. 자신만의 독특한 독서법을 책을 읽다 보면 더위가 저만치 물러가더라는 것이다. 정일삼(45·광주시 북구 일곡동)씨는 휴가 때면 자기계발서를 읽곤 한다.

"하루하루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책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다. 유일하게 독서에 대해 숙고해보는 시기가 바로 휴가 때다. 주로 리더십이나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에 관한 자기계발서를 읽는 편이다. 그런 책들은 내용이 무겁지 않아 읽는 재미뿐 아니라, 사회의 흐름을 읽는 데도 적잖은 도움을 준다."

## 휴가지에서 독서 즐기는 북캉스 '봄' 자연과 책 속으로 떠나는 두겹의 여행 직장인들, 자기계발서 읽으며 '힐링'

일반적인 바캉스가 여행지와 먹거리, 숙소에 비중을 둔다면, 북캉스는 키워드가 첨가된다. 휴가지에서 읽을 책을 한두 권 갖고 떠나는 북캉스의 묘미는 '지혜의 바다'에 정신을 온전히 풍덩 빠뜨린다는 데 있다.

고전학자이자 인문학자인 정민(한양대 국문과) 교수는 '오직 독서뿐'에서 살아 숨 쉬는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올 여름 북캉스를 떠나는 이들을 위해 그가 말하는 조선 지식인들의 독서 전략을 간략히 소개한다.

"한가지 뜻으로 한 책씩 읽을 것, 얇게 읽고 낮춰 볼 것(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이다), 물러서서 살펴 볼 것' 등이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북캉스 대신 책과 함께 휴가를 즐기는 북캉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은 서구 치평동 북카페 '다락'에서 북캉스를 즐기고 있는 시민의 모습.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중서 정율성 탄생 100주년 공연

광주문화재단, 7일 베이징서 '한·중 교류의 밤'

광주가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 정율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중국 베이징에서 문화도시 광주와 정율성의 음악을 알리는 공연이 열린다.

광주문화재단은 7일 오후 7시 30분 중국 베이징 북경세계극원에서 '한·중문화교류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 공연에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지휘 김광복)을 주축으로 시립국극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역 성악가 등 총 45명이 출연한다. 정율성의 곡 '망부운', '연안송' 공연과 함께 시립국악관현악단의 남도민요 연주, 드라마 OST 등을 통해 남도문화의 아름다움을 베이징 현지에도 알릴 계획이다.

첫 무대는 시립국악관현악단이 오페라 '망부운'과 관현악 '축연무'를 연주하고 소프라노 김진희, 메조 소프라노 신은정, 테너 김백호, 바리톤 박병국, 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 황운영·노주영이 정율성의 동요와 가곡을 함께 노래한다.

이어 드라마 '대장금'과 '별에서 온 그대' OST, '경복궁 타령' 공연을 비롯해 김광복 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의 피리 독주, 남도민요, 사물놀이를 위한 국악 관현악 등 신명나는 남도 문화를 선보이고 '아리랑' 대합창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이와함께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0월 25일 '페스티벌 오! 광주-정율성축제' 기간 중국 북경시 공연단을 초청, 상호 교류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 문의 062-670-7462.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광주시립도서관, 22일까지 '독서캠프'

광주시립도서관은 오는 22일까지 무등도서관 아메리칸 코너 주최로 '여름 독서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메리칸 코너와 주한미국대사관 협력으로 진행되는 이번 독서 캠프는 아이들의 영문도서 읽기와 독후감 작성을 장려하기 위해 여름방학 기간 3주간 진행된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무등도서관내 아메리칸 코너와 어린이 도서관에 소장된 영문도서를 읽고 지정된 양식에 따라 영어로 독후감을 써서 제출하면 된다.

캠프기간 종료후 최다 독서왕(1명)과 일정 수의 영문도서를 읽은 참가자들에게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증정하는 경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문의 062-613-7757.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국립나주박물관 자원봉사자 모집

국립나주박물관이 오는 17일까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전시해설, 도서정리, 기타 체험학습 등이며 우리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최소 월 2회 8시간 이상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자원봉사자로 선발되면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을 거쳐 올해 말까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게 된다.

자원봉사자에게는 봉사활동시간이 주어지고, 식사와 함께 소정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나주박물관 홈페이지(http://naju.museum.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061-330-7820. /김경민기자hki@kwangju.co.kr

## 대한민국 최강! 센 캐릭터 일곱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 강적들

고품격과 저품격 사이의 아슬아슬한 시사쇼!  
매주 수요일 밤 11시 방송